

보 도 해 명 자 료

(15.4.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U턴기업 지원정책 3년째 헛바퀴” (15.4.7,
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□ “MOU체결 68개 기업중 57곳이 투자철회·관망중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‘15.4월 현재, 지자체와 유턴 MOU를 체결한 기업 총 68개중
28개사가 유턴법에 따른 지원대상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고,
공장 건립 등 실제 투자를 진행중이며,

○ 그 외, 주얼리 7개사 등 중국 현지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
명시적으로 투자 포기의향을 밝힌 일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
기업들은 해외 사업장 청산 등 국내복귀를 준비중이며, 향후
단계적으로 실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

□ 또한, ‘14년에는 총 16개 기업이 국내복귀 의향을 밝히고,
지자체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

□ 산업부는, 유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
하는 한편, 유망기업 수요 발굴을 적극 전개하여 유턴 활성화를
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박진서 과장(044-201-4090)